

룰리족의 현황 및 종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amarkand) 지역과
키르기즈스탄 오쉬(Osh) 지역을 중심으로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CAFR(Central Asia Field Research) 10기 훈련팀¹

¹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CAFR(Central Asia Field Research) 10기 훈련팀에서 2009년 12월 29일 ~ 2010년 1월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 키르기즈스탄 오쉬 중심으로 룰리족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이다.

목 차

I. 조사설계

II. 들어가는 말

III. 룰리족의 현황

1. 일반개요
2. 정치분야
3. 사회분야
4. 경제분야
5. 생활분야
6. 문화분야
7. 교육분야
8. 종교분야
9. 기독교 상황

IV.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의 현재 이슈들

V. 룰리족의 선교전략

1. 기존 선교 현황
2. 룰리족 선교의 방해요소
3. 룰리족 선교의 가능성과 성공사례
4. 룰리족의 선교전략 제언

VI. 나가는 말

I. 조사설계

1. 조사의 필요성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에 거주하는 룰리(Luli)족은 집시(Gypsy)²의 하위 그룹에 속한다. 룰리족은 그들 스스로를 무갓(Mughat) 또는 몰타니(Multani)라고 지칭한다. 무갓은 불의 숭배자(Fire-Worshipper)를, 몰타니는 그들이 수세기 전 파키스탄 남부에 위치한 도시인 몰탄(Multan)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룰리족은 14세기 초 아무르 띠무르 제국 시절 예술가, 건축가 혹은 노예로 잡혀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고, 키르기즈스탄 오쉬에 살고 있는 룰리족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주로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언론은 간접 지식만을 바탕으로 왜곡된 견해들을 기사화 하여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는 곧 이들 현재의 구걸하는 삶에 대하여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며, 결국 룰리족은 본래부터 비천한 민족이었다는 일부 외부인³들의 근거 없는 고정관념들을 만들어 내었다. 그리하여 일부 외부인들은 룰리족을 설명하는데 있어 ‘미개 생물체(wild creature), 짐승(beast), 보잘 것 없는 존재(dreg of the population)’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본 조사팀은 리서치를 통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인들의 이러한 룰리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재고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자민족 역사에 관한 공적 문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룰리족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본 보고서가 그들 정체성의 올바른 기원이라 인식 될 수 있는 공적 문헌으로서의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2. 조사의 목적

- 1) 외부인들에게 룰리족을 알리고, 룰리족의 전반적인 상황을 개괄적으로 조사하여 그들에 대해 사실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² 코카서스 인종에 속하는 소수 유랑민족

³ 비룰리(non-Luli), 룰리가 아닌 사람

가능하게 한다.

- 2) 리서치를 통해 얻은 객관적 정보를 선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룰리족의 복음화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도출한다.
- 3) 룰리족의 복음화를 위한 자료를 조성하여 현지 룰리족 사역자에
도움을 주며, 새로운 중보자와 사역자를 동원한다.

3. 조사지역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사마르칸트(Samarkand)
키르기즈스탄(Kyrgyzstan) 오쉬(Osh), 비쉬켵(Bishkek)

4. 조사대상

룰리(Luli)족

현재 중앙아시아 전역에 분포하여 있고 파키스탄 남부지역의 도시 물탄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물타니라고 주로 소개한다. 룰리족은
선교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룰리족 대상 사역자도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5. 현장조사기간: 2009년 12월 29일 ~ 2010년 1월 21일⁴

기간	조사 지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2009/1/2- 2010/01/11	사마르칸트	룰리족	인터뷰
2009/01/11- 2010/01/18	오쉬	룰리족	인터뷰
2010/01/18- 2010/01/21	비쉬켵	룰리족	인터뷰

⁴ 이 기간은 현장에서의 조사시간 만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본 조사팀은 2009년 9월에 구성되어 5
개월 간 10주간의 학기 중 훈련(리서치 강의, 예배, 말씀양육, 캠프 2회, 리서치실습, 선교세미나, 부
서모임, 지역연구 모임 등), 10일간의 합숙훈련(강의, 예배, 사전조사, 팀워크 훈련, 역할점검 등), 3
주간의 현장조사, 10일간의 보고서 합숙 과정을 통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6. 조사인원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우즈베키스탄 현지 조사팀⁵ 5명

	이름	학부 (학번)	역 할
1	모휘정	글로벌리더십학부 (09)	디렉터, 예배부장
2	김자영	생명과학부 (08)	섬김이, 미디어부장
3	이은지	글로벌리더십학부 (09)	섬김이, 문서자료부장
4	김성애	글로벌리더십학부 (09)	훈련생, 총무부장
5	이진호	생명과학부 (04)	미디어훈련생, 미디어부원

2) 통역자 3명

	이름	소 속	역 할
1	A	-	사마르칸트 안내, 통역
2	아크마랄	-	오쉬 통역

7. 조사방법

1) 사전조사

(1) 문헌 조사

① 인터넷 조사

여호수아 프로젝트 www.joshuaproject.net

구글 www.google.com

⁵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의 선교 훈련 단체인 GFR(Global Field Research)에 소속된 9개 지역조사팀 중 CAFR(Central Asia Field Research) 훈련팀을 말한다. GFR 훈련 체계의 1단계인 훈련팀(Training Team)은 미전도종족 조사에 중점을 두고 훈련되며, 다음 단계로는 주제별 현장조사에 중점을 둔 리서치전문가과정(Research Expert Course)과 리서치단기선교사과정(Research Missionary Training Course)이 있다.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www.uzb.mofat.go.kr
키르기즈 한인경제인협회 www.kyrco.com

② 문헌 조사

우즈베키스탄 역사 자료 (타지키스탄 역사박물관 소장)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 4권 2호」

(2) 전문가 인터뷰

A선교사 (70대 초반, 롤리족 사역자)

2) 현장 조사

(1) 관찰 조사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사마르칸트(Samarkand),
키르기즈스탄(Kyrgyzstan), 오쉬(Osh), 비쉬켵(Bishkek)

(2) 인터뷰

① 전문가 인터뷰

사마르칸트 통계청장, 이맘, 대학 총장, 교수 등

② 일반인

롤리족, 다른 현지인

(3) 문헌 조사

영국단체 Save the children journal

8. 조사 성과와 한계점

본 조사팀이 현장조사 이전에 접한, 롤리족에 관한 공식적인 문헌은 타지키스탄 역사 박물관에 있는 자료 하나가 전부였다. 그러다가 롤리들의 마을에서 ‘Save the Children’ 에서 만든 책 한 권을 더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역사 자료와 책 모두 러시아어로 쓰여져 있어서 번역을 통해 자료를 접하였기 때문에 조그마한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었음을 명시한다.

룰리족에 대한 문헌자료가 거의 없어서 인터넷 기사를 참고하고 인터뷰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 때문에 객관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조사팀은 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할 때에 같은 질문이라도 여러 사람 물으며 거듭 확인하여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 성과 예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룰리족이라고 해도 조금씩 살아온 모습들이 달라서 룰리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룰리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 본 조사팀은 룰리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 키르기즈스탄을 조사하면서 많은 룰리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여 이들을 더 잘 알고자 노력하였다.

우즈벡과 키르기즈 현지인조차 룰리족의 정체성에 대해 잘 모르고 이들에 대한 문헌자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본 조사팀은 많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룰리족에 대한 역사자료를 다 찾아보고자 애썼고 현장조사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룰리족에 대한 정보들을 현지에서 많이 얻을 수 있었다.

2) 한계 예시

룰리족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터뷰중심의 현장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단기간에 2개 국가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국가별 세부 상황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조금 미흡할 수 있다. 여러 룰리 마을을 방문하였으나 마을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

II. 들어가는 말

중앙아시아는 이 시대 마지막 선교사명인 백 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복음화되어야 할 지역이다. 하지만 중앙아시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그들에 가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른 중앙아시아인들보다 더 가리워져 있던 룰리족이 있었다.

룰리족은 본래 파키스탄 남부지역인 몰탄에서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현재는 중앙아시아 전역에 분포하여 살고 있는 종족이다. 과거 티무르제국의 아무르티무르가 데려온 것으로 전해지는 이 룰리족은 오랜 세월 중앙아시아를 떠돌며 살아왔다. 중앙아시아 국가 어느 곳에서도 이들을 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티무르제국 몰락 이후 우즈베크 정부가 룰리족에 대한 역사자료들을 모두 없애버려서 현재에 와서는 룰리족의 역사를 증명해줄 만한 자료 하나 구하기 힘든 상태이다. 그리고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룰리족은 오랜 세월 구걸을 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그것이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외부에는 알려져 있지도 않은 이 불쌍한 룰리족에 대해 현지인들은 안 좋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룰리족을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이들에게 다가가기를 꺼린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중앙아시아가 모두 복음의 물결로 덮일 그 때에도, 룰리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룰리족이 살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결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알리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룰리족은 중앙아시아 전역에 분포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에 특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본 조사팀은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룰리족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 룰리족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보고서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룰리족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기대한다.

Ⅲ. 롤리 종족의 현황

1. 일반개요

1) 지역개관



<그림 Ⅲ-1> 우즈베키스탄 지도



<그림 Ⅲ-2> 키르기즈스탄 지도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 최고(最古) 도시 중 하나이다. 25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사마르칸트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동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사마르칸트는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오래 전부터 번영을 누렸으며, 14세기 말 우즈베키스탄의 건국 영웅인 티무르(Timur)가 사마르칸트를 자신이 세운 국가의 수도로 삼으면서 유례없는 경제적, 종교적 번영을 누렸다. 현재 남아 있는 이슬람 유적 대부분은 이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아직까지도 유서 깊은 문화 유적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오쉬는 키르기즈스탄의 수도인 비슈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오쉬 주변으로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이 국경을 접하고 있다. 고고학자들은 키르기즈스탄 오쉬의 역사를 3천 여 년으로 추정하는데, 중세시대 오쉬는 인도와 중국을 유럽과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중요 거점 도시였다. 또한 오쉬는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는 오쉬의 술레이만(Suleiman)산이 그곳에 방문하는 순례자들의 질병을 낮게 한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 메카(Mecca)에 가서 순례를 하지 못하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메카를 대신해서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 키르기즈스탄 오쉬는 각국 이슬람의 영적 근원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는 곧 2천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를

지닌 두 지역이 이슬람적 홍망과 재부흥의 역사를 함께하였기 때문이다. 두 지역은 각국의 복음화를 방해하는 영적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진들이 무너질 경우에는 효과적인 복음의 파급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2) 정체성

룰리족은 스스로를 몰타니(Multani), 주기(Jughi), 쯔간이라 지칭하며 외부인들은 이들을 룰리(Luli)라 부른다. 룰리는 남자(Lu)와 여자(Li)를 뜻하며, 몰타니는 중앙아시아 룰리들이 1380년에 몰탄 제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이다⁶. 룰리들은 중국에서는 보썬 쟁귀딘 만취진, 위구르에서는 오고차,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친가나, 영국에서는 에스팔레오스, 인도에서는 브하라딘이라고 불리운다⁷. 여권(passport)에는 쯔간, 룰리 또는 우즈베크인으로 명명되어 있다⁸.

룰리족은 자신들만의 언어⁹를 갖고 있다. 이 언어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전해내려오기 때문에 ‘미지의 언어’라고도 불린다. 그들의 언어에서는 우르드어와 인도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페르시아어에 가까웠던 그들의 언어는 수세기에 걸친 유목 생활로 인해 인도유럽어와 타직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일부 룰리들은 아직까지 일상 생활에서 룰리들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나, 7백여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은 우즈베크어를 사용하고 있다. 룰리들은 자체적인 문자 체계가 없어 러시아 문자를 빌려 사용한다.¹⁰

룰리족은 보통 무슬림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무속신앙과 샤머니즘이 주를 이룬다. 이들 민족은 자신들이 외부인(non-Luli)들과 구별된 존재라고 생각한다. 룰리 집단은 외부 집단에 대해 상당히 닫혀 있다¹¹. 이들의 생김새,

⁶ Nafisa Hassanova, Perceptions of Identity: Luli in Uzbekistan. www.thinking-east.net

⁷ 본 항목은 바하드르 (50대, 남, 룰리, 키르기즈스탄 오쉬 거주)와의 1월 17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⁸ 타직인들 중에도 우즈베크인이라 적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⁹ 룰리들은 이를 ‘파르스’라고 하는데, 이는 ‘페르시아, 이란’이란 뜻이다.

¹⁰ 본 항목은 바하드르 (50대, 룰리, 남, 키르기즈스탄 오쉬 거주)와의 1월 16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¹¹ 그러나 외부 집단이 룰리 집단에 대해 닫혀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외부 집단은 룰리 집단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편견을 갖고 일방적으로 룰리 집단과의 관계의 문을 닫아 가고 있다.

옷차림, 생활방식 등은 자국내의 다른 민족들과 비교적 명확히 구분된다.

<표> 사회역할 중요성 순서¹²

사회적인 역할	가장 중요	아주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부모(어머니/아버지)	37	27	26	3	7
자녀(딸/아들)	44	35	21	-	-
형(오빠), 누나(언니)	24	36	37	3	-
이웃 구성원	6	32	58	4	1
롤리 공동체의 오쉬 마을 구성원	7	29	61	3	-
오쉬 마을 거주자	5	21	67	6	1
러시아인	2	16	66	13	3
키르키즈인	6	18	68	6	2
중앙아시아인	4	12	66	14	4
과거 소련 시민권 자	5	11	55	23	6
전 세계에 있는 롤리인	7	19	65	8	1

‘<표> 사회역할 중요성 순서’를 분석해보면 롤리들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비교적 잘 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쉬 마을의 구성원으로서와 롤리로서의 사회적 역할 인지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과거 소련 시민권 자, 중앙아시아 인, 남 러시아인, 그리고 키르키즈의 시민권 자로의 인식은 더욱 낮았다. 응답자의 16%는 자신들이 다른 키르키즈 시민들과 공통점이 없다고 여겼고, 20%는 같은 시민이라거나 또는 같은 종교(15%), 삶의 조건(15%)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¹³

3) 인구

¹² 본 내용은 Save the Children, 2004 ‘오쉬에서의 롤리족의 삶의 환경과 공동체 생활’ - 5.9 공동체 생활에서 발췌하였다.

¹³ Ibid.

룰리는 아라비아, 파키스탄, 우즈벡, 인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 키르기즈, 중국 등에 거주한다. 키르기즈스탄에서는 총 7-8천명의 룰리들이 살고 있다¹⁴. 비쉬켄에는 약 5백명의 룰리들이 살고 있고,¹⁵ 오쉬에는 395가정, 2584명의 룰리가 살고 있다¹⁶.

4) 지리

룰리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사마르칸트는 우즈베키스탄 중동부에 있는 사마르칸트주의 주도이다. 오쉬는 키르기즈스탄 서부에 있는 오쉬주의 주도이다. 오쉬는 우즈베키스탄 국경부근의 페르가나벨리 비옥한 지대에 위치한다..

5) 역사

룰리(Luli)족은 집시(Gypsy)의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들은 본래 인도와 파키스탄의 북서쪽 지방 물탄(Multan)이란 곳에서 수 세기 동안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가 14세기 초 아무르 띠무르 제국 시절 약 5천명의 룰리들은 예술가, 건축가



<그림 Ⅲ-3> 띠무르 동상

혹은 노예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끌려오게 된다. 그러다가 16세기 초 티무르 제국의 멸망과 함께 룰리족은 국가적 민족 지원 차원에서 도외시된 채로 방치되어 방랑자적 삶을 살게 된다. 룰리들은 이러한 사회,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 구걸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소련 시절 대부분의 룰리들의 경제적 상황은 현재보다 나았다. 룰리들은 정부로부터 보장된 일, 집, 사회적 서비스를 받으며 오늘날보

¹⁴ 본 항목은 주흐리딘 (41세, 사마르칸트 룰리마을 지도자)과의 1월 15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¹⁵ 본 항목은 J사역자 (38세, 비쉬켄 사역자)와의 1월 12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¹⁶ 본 내용은 Save the Children, 2004 ‘오쉬에서의 룰리족의 삶의 환경과 공동체 생활 - 5정보 분석’에서 발췌하였다.

다 적은 차별을 받고 생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동시에 소련은 룰리족을 자국민으로 융합하기 위해 커다란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이때 룰리어로 된 공식 문서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소련이 해체되자 독립국은 더 이상 룰리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없게 되었고, 룰리들은 구걸하는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¹⁷.

키르기즈스탄 오쉬에 살고 있는 룰리들은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키르기즈스탄 정부에서는 1950년 룰리들을 위하여 도시의 새로운 터미널 옆에 한 지역을 구별해 주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룰리 마을’이라 불렀으나, 70년대에 와서는 ‘얀기 마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¹⁸.

룰리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 온다. ‘옛날 옛적에 한 가난한 부부는 아들 ‘류’와 딸 ‘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전쟁이 터졌고 부부는 피난을 떠나게 된다. 그러는 도중 류와 리는 부모를 잃게 되고, 각자 다른 길로 가서 부모님을 찾기로 한다. 그렇게 헤어졌다가 몇 년 후 류와 리가 만나게 되나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된다. 그 때 한 점쟁이가 그들에게 저주를 내렸고, 그 저주는 자손 대대로 이어졌는데 그 자손이 바로 룰리이다¹⁹.

2003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룰리족의 상황을 알고 우즈베키스탄정부에 이들의 권리 보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룰리족에 대한 공적 문헌의 부재로 인해 권리 요구의 정당성을 얻지 못했고 결국 인권회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²⁰.

6) 요약

현재 룰리족에게 보급된 공적 문헌은 없어서 이들 역사에 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자민족의 역사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는

¹⁷ Nafisa Hassanova, Perceptions of Identity: Luli in Uzbekistan www.thinking-east.net

¹⁸ 본 내용은 Save the Children, 2004, ‘오쉬에서의 룰리족의 삶의 환경과 공동체 생활’ - 6.1 룰리의 시초에서 발췌 및 편집하였다.

¹⁹ Ibid.

²⁰ 본 내용은 A선교사(70대 초반, 룰리족 사역자)와의 12월 3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있으나 대부분이 구전되어 오는 것들이다²¹. 정설(定說)은 아니나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룰리들은 14세기에 아무르 떠무르에 의해 예술가, 건축가 혹은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라고 전해진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지를 거쳐오면서 그곳의 문화, 종교, 언어 등을 조금씩 받아들여 왔다는 것이다²². 또한 이들은 가족 중심 혈연 관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인식을 갖고 있다.

룰리족은 이슬람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룰리들은 무슬림이 됨으로써 자민족의 새로운 정체성의 뿌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우즈벡 민족과의 동화됨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각 개인의 복음화를 위해 무슬림적 정체성이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인식 할 때 이는 반드시 극복해야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룰리족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0.1%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은 분명 각국의 시민들이다. 그러나 각국의 시민들은 룰리를 외부 세계에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들은 외부 세계에 너무나도 깊숙이 숨겨져 있다. 룰리족은 알려져 있어야 마땅하나 알려져 있지 않은 종족이다²³. 룰리족은 세계 선교의 마지막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시금 ‘우선 복음화’의 자리로 재조명되어야 할 민족임이 분명하다.

2. 정치분야

1) 개요

키르기즈스탄 쿠르만벡 바키예프 (Kurmanbek Saliyevich Bakiyev) 대통령은 2009년 7월 23일에 행해진 대통령 선거로 재선에 성공했으나 2010년 4월 반정부시위가 발생하여 쫓겨나고 말았다. 우즈베키스탄은 여전히 독재정치가 행해지고 있으며, 오랜 독재정치로 국민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지고 있다.

²¹ Ibid.

²² A Visit to the Luli Mahalla, Written by James on Tuesday, 5 August 2008

²³ 본 내용은 A선교사(70대 초반, 룰리족 사역자)와의 11월29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2) 정치구조

우즈베키스탄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1991년 취임한 이슬람 카리모프(Islam Abduganievich Karimov) 대통령이 현재까지 장기집권하며 국정 전분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의회 내 야당세력은 거의 전무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세력은 미약한 상태이다. 독자적인 의회의 권력이 미비하다.²⁴



<그림 Ⅲ-4> 키르기즈스탄 반정부시

위

1993년 헌법은 키르기즈스탄이 민주주의 대통령 중심제 공화국임을 규정했다.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이루어지고 의회는 일원제다. 사법부는 대법원, 헌법, 지역법원, 최고재판관으로 이루어진다. 주요정당으로는 민주운동당, 민주세력연맹, 키르기즈 공산당이 있다.²⁵

3) 행정구조

우즈베크의 지방행정계층은 3개의 층구조로 되어있다. 지방행정의 최상부 조직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1개의 자치공화국과 타슈켄트시 그리고 12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광역지방 행정 조직 밑에는 하부 지방행정조직인 시와 구가 있다. 이들 지방행정조직은 국가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반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면, 동, 리에 해당하는 기초자치행정구역도 있다.²⁶

키르기즈스탄은 7개주(oblasty)와 2개시(shaar)로 되어있다. 북부 지역은 추이(Chui)주, 이시쿨(Issyk-Kul)주, 탈라스(Talas)주이며 남부지역은 잘랄라바트(Jalal-Abad)주, 오쉬(Osh)주, 나른(Naryn)주, 바트켄(Batken)주이다. 2개의 시는 수도 비쉬켄과 오쉬이다.²⁷

4) 사법

²⁴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uzb.mofat.go.kr (검색일: 2010년 1월30일)

²⁵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4권 2호(2009년 가을) p.447

²⁶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uzb.mofat.go.kr (검색일: 2009년 12월 26일)

²⁷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4권 1호(2009년 봄) p.372

우즈베키스탄의 사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 최고재판소, 고등경제법원, 및 하급법원으로 구성된다.²⁸ 최고재판소는 최고단계의 민사, 형사, 행정법원으로 각 및 지방의 민, 형사 법원 및 군법원을 감독한다.²⁹

키르기즈스탄의 사법 체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그리고 지방법원으로 구성된다. 재판은 우리나라 재판형식과 비슷하고 사형제도는 5~6년 전에 폐지되었다.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서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그 후에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소송을 걸 때에 변호사 선임비는 4081숨 (약 \$100) 이며 전체재판에 드는 비용은 2만숨 (약 \$450) 이다.³⁰

우즈베키스탄 룰리족은 종족만의 특색이 많이 없어졌고, 다른 우즈베크 사람들과 거의 동화된 삶을 살고 있다. 따라서 종족만의 법적 체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 키르기즈스탄의 오쉬에서 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는 룰리들은 종족만의 질서체계를 확실히 갖추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종족만의 법적 체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

5) 치안

우즈베키스탄의 현 대통령 카리모프는 1991년 12월 이후 계속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즈베크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리 어디에서나 쉽게 경찰들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경찰이 많다. 사마르칸트시에만 7천명 정도의 경찰이 있다.³¹ 그리고 경찰이 많은 것이 반드시 안 좋은 일만은 아니다. 정부의 감시체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경찰이지만 이들 때문에 치안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어디든지 경찰이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밤에는 산책을 잘 하지 않는다.³² 이는 키르기즈스탄도 마찬가지인데, 현지 경찰은 산책은 밤 10시 전까지만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²⁸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uzb.mofat.go.kr (검색일: 2009년 12월 27일)

²⁹ Ibid.

³⁰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4권 2호(2009년 가을) p.447

³¹ 본 내용은 후르캣(30대, 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경찰)와의 1월 8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³² 본 내용은 D선교사(53세, 우즈베크 사역자)와의 12월 29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6) 요약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카리모프는 줄곧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경찰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삼엄한 감시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키르기즈스탄에서도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가 계속 행해지고 있다. 바키예프 대통령은 2009년 7월에 재선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이렇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닫으면서, 복음의 문도 닫으려 하고 있다. 두드려야 한다. 이 나라의 문이 열리도록 말이다.

3. 사회분야

1) 개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나가 구걸을 하는 것이 많은 롤리 여성들의 삶이다. 이들은 이런 삶을 오래 전부터 계속 세습해왔고 이제는 이것이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롤리들은 집 없이 이곳 저곳을 떠돌며 살기도 하고, 마을에 정착하여 살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롤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지 못하고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2) 가족구조

우즈벡과 키르기즈 롤리 모두 롤리족과 타민족과의 결혼은 흔치 않기 때문에 롤리족 사이에서는 근친상혼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³³ 우즈벡의 경우, 롤리 남자들은 우즈벡 여자와 결혼하기도 하지만, 롤리 여자들은 대부분 롤리 남자와 결혼한다. 롤리 여자가 우즈벡 남자와 결혼할 때는 보통 후처로 들어간다. 비취책에 사는 롤리들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세 들어 사는데 2,3가정이 모여서 10~20명 정도가 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산다. 우즈벡 롤리마을의 경우에도 친척들이 함께 대가족형태로 모여 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종족 공동체 구조

³³ 본 내용은 A선교사(70대 초반, 롤리족 사역자)와의 12월 3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는 롤리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2개의 롤리 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마을에는 롤리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즈벡, 타직 등 다른 민족들도 함께 산다. 타슈켄트의 철수 바자르에도 롤리 공동체가 있다.

키르기즈스탄 비쉬켈에는 롤리 마을이 없어서, 롤리 사람들은 다른 종족 사람들과 섞여 산다. ‘오룩’이라는 마을에 롤리가 모여서 산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마을에 가본 사역자는 그곳에서 롤리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공통적으로 롤리 마을은 혈연 중심이고, 공동체는 친족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³⁴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은 거의 다 친척이다. 롤리들은 친척들과 함께 살고, 이동 시에는 함께 무리 지어 다닌다.³⁵ 롤리들은 다른 공동체 사람들과는 접촉이나 연합을 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이들은 다른 롤리에 대해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답한다. 높은 계층의 롤리는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한다.³⁶

4) 주변 종족 및 이웃과의 관계

롤리족과 우호적인 종족, 갈등이 있는 종족을 뚜렷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롤리족이 이전에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롤리족을 좋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 예로, 조사팀이 롤리마을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많은 현지인들이 롤리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롤리 마을은 롤리 사람들이 다른 종족 사람들과 한 마을에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보였다.

5) 사회적 모임 및 단체

키르기즈스탄 비쉬켈에는 키르기즈인들이 세운 소수민족 연구소가 있다.³⁷키

³⁴ 본 내용은 J사역자(38세, 비쉬켈 사역자)와의 1월 19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³⁵ 본 내용은 무샤라프(50대, 여, 롤리)와의 1월 9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³⁶ Ibid.

³⁷ 본 내용은 A선교사(70대 초반, 롤리족 사역자)와의 12월 3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르기즈스탄에는 종족마다 센터가 있는 데, 롤리센터도 있다³⁸. 키르기즈 롤리족은 타종족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6) 여성의 역할

가정경제는 보통 여성들이 책임을 진다. 롤리 여자들은 결혼할 때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서약을 한다. 롤리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한다. 여성들 중에는 구걸하며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여자들은 7살 정도부터 집안일을 시작한다.³⁹



<그림 Ⅲ-5> 거리에 나와있는 롤리

가장의 권위는 상당하다. 한 롤리 여성은 남편이 하지~~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지 않는 다고 말했다.⁴⁰ 남자들 중에는 타지로 일하러 가는 사람이 많아서, 홀로 사는 여성들이 많으며 과부들도 많다.⁴¹ 이혼은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아내의 성격이 나쁠 때 한다고 한다.⁴² 롤리 사람들은 결혼하고 이혼할 때, 서류상으로 등록을 잘 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혼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7) 요약

롤리들의 공동체는 혈연중심으로 구성되는데 두 세 가정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 키르기즈스탄 오쉬에 사는 롤리들은 마을을 형성하여 산다. 다른 마을과는 교류가 거의 없어서 롤리들은 서로에 대해 인식

³⁸ 본 내용은 바하드르(50세, 남, 이맘, 키르기즈 오쉬 롤리 지도자)와의 12월 3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³⁹ 본 내용은 아지나(45세, 여, 키르기즈 오쉬 롤리)와의 1월 9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⁴⁰ 본 내용은 글로자(27세, 여,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롤리)와의 1월 19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⁴¹ 본 내용은 J사역자(38세, 비취책 사역자)와의 1월 19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⁴² 본 내용은 무사라프(50대, 여,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롤리)와의 12월 9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다른 민족사람들은 롤리족이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주로 구걸을 하며 살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한다.

롤리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삶이 달라져서, 더 이상 그들이 다른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손길을 내미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이들도 그렇게 쓰실 것을 기대한다.

4. 경제분야

1) 개요

소비에트 시절, 우즈벡 사마르칸트 롤리족은 일자리, 주거지, 사회적 서비스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경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에트는 롤리족이 그들의 고유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동질화를 위해 큰 압력을 가하였다. 소비에트 안으로 동질화 시키려는 문화정책은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롤리족들이 주변인으로서 더욱 소외 받게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 더 이상 롤리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지 못했고, 따라서 롤리족의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현재 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구걸하며 살고 있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많이 사라졌다. 우즈벡에서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롤리족은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 등의 인접한 나라로 이주하였다. 따라서 현재 키르기즈 비쉬켄과 오쉬에서 살고 있는 롤리족의 많은 수가 우즈벡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⁴³

2) 산업구조

우즈벡 사마르칸트 롤리족과 키르기즈 비쉬켄과 오쉬에 사는 롤리족 대부분은 그 사회에서 극 빈곤층 또는 빈곤층을 이루며 살고 있다. 한때 소비에트 시절에는 롤리족을 포함하여 대부분 사람들의 일자리가 보장되었고, 주거지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살았으나 소비에트의 붕괴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의 독립 이후 롤리족들의 실직률이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금까지도 많은 롤리족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⁴⁴

⁴³ www.fravahr.org(검색일: 2009년 12월 26일)

⁴⁴ www.fravahr.org(검색일: 2010년 2월 4일)



III-6. 일하는 룰리 남성들

룰리족 남성의 경우 주로 집안일을 하거나, 밭이 있는 경우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가축을 돌본다. 남성은 보통 구걸을 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카자흐스탄 국경선 근처에서 온 무갓(Mughat)이라고 불리는 룰리족 남성은 구걸을 한다고

한다.⁴⁵ 룰리족 남성들 가운데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주로 칠장이, 음악 선생님, 석수, 일꾼, 미용사, 수선공으로 일한다. 하지만 보수를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전체 남성 중 40% 이내이다. 룰리족 여성의 경우 대부분 아이들과 함께 구걸을 하러 가거나, 점을 봐주고 대신 돈을 받고, 밭이 있는 경우 밭일을 도우며, 주로 집안일을 한다.⁴⁶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도시인 사마르칸트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시 전체를 재정비 하고 있는데, 우즈베크 사마르칸트 룰리족 남성 일부는 사마르칸트의 재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가로수를 심는 일 등의 단순 노동을 하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도 있었다. 사마르칸트 외곽지역에 사는 룰리족은 집에서 직접 호두 등의 견과류를 재배하거나, 소나 닭 등의 가축을 키우고 밭을 가꾸며 자급자족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키르기즈 오쉬 룰리족은 오쉬 공항 근처에 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다. 마을 안에서 마가진(작은 구멍 가게)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소나 양 등의 가축을 길러서 파는 사람도 있었다. 직업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흙벽돌을 구워서 팔거나, 고무와 고철을 수집하여 마을 인근에 있는 중국 공장에 파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우편 배달 등의 마을 공동체의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여성의 경우 머리카락을 팔아 돈을 벌기도 한다. 가장 많은 수입을 버는 사람은 1000숨에서 2000숨 정도(3만원~6만원 정도) 벌기도 하는데, 이들은 이발사, 가죽 손질, 목수에 종사하며 이들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했다⁴⁷.

3) 발전수준

우즈베크 사마르칸트 외곽지역에 있는 룰리마을과 키르기즈 오쉬 룰리마을의 공통점은 도시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난 룰리마을은 우리나라의 70년대 시골

⁴⁵ 본 내용은 G선교사(35세, A소속, 우즈베크 사역자)와의 1월 1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⁴⁶ Save the Children, “오쉬에서의 룰리족의 삶의 환경과 공동체 생활”, (2004년 8월)에서 발췌하였다.

⁴⁷ Ibid.

풍경을 닮았다. 하지만 두 마을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사마르칸트 룰리 마을의 경우 마을 구성원 중 룰리족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우즈베크인과 러시아인 등 여러 민족과 함께 산다. 그러나 오쉬 룰리마을에는 마을 구성원이 거의 룰리족뿐이다.

룰리족 내에서도 생활 수준에 따라 계층을 나눌 수 있었는데, 최상층은 좋은 집과 자가용, 최신 TV, 가구, 비디오, 휴대폰 등을 소유하며, 친척들이 모두 각각 다른 집에서 생활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 직업이 있으며 결혼이나 장례식 같은 가족행사를 크게 치르고,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다니며, 졸업 후에도 학업을 유지한다. 중산층은 수리가 필요한 집에서 살며 식사도 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옷을 사는 것은 좀 힘들고, 자가용이 없으며, 비디오 플레이어와 TV가 없으며 2~3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고 아이들은 학교를 자주 빼먹는다. 빈곤층은 수리가 급하게 필요한 집에서 살며, 어떤 창문에는 유리가 끼어있지 않다. 가구나 침구류도 없으며 식사는 항상 같고 빈약하다. 옷은 비누와 세제를 살 돈이 없어서 더럽고 많이 닳아있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자주 아프고 음식과 옷과 신발을 필요로 한다. 극 빈곤층은 한방에 7~8명이 생활하며, 이불 없이 더러운 매트에서 그냥 잔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주로 구걸을 한다. 부모는 아이들을 방치하며 많은 가족 구성원이 혼인신고서, 출생신고서 등의 서류가 없다. 키르기즈 오쉬 룰리족은 40%가 극 빈곤층에 해당하며 33%가 빈곤층, 20%가 중산층, 그리고 5%만이 최상층에 속했다.⁴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첫번째 산업은 관광이고 두번째는 농업, 그리고 기타산업으로는 가공업과 상업 등이 있다. 사마르칸트는 목화, 자동차, 농산물, 화합물 등을 수출한다. 오스트리아, 러시아, 터키, 인도, 중국 등의 자본으로 이루어진 합작 기업 및 공장들이 진출해 있다. 현재 사마르칸트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시 전체적인 재정비 사업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마르칸트의 경제적 발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룰리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룰리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그들의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는 사마르칸트 재정비사업으로 인한 짐 나르기 혹은 땅 파기 등의 단순노동에 종사한다.⁴⁹

키르기즈스탄 오쉬 룰리마을은 키르기즈스탄의 15개의 시골 중 가장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안에는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그 외

⁴⁸ Save the Children, “오쉬에서의 룰리족의 삶의 환경과 공동체 생활”, (2004년 8월), 6.6 공동체의 사회적 구성 에서 발췌하였다.

⁴⁹ 본 내용은 루스탐바시바예프(40세, 남, 통계청장)와의 1월 6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하다. 5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에는 물과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 근처에 중국인이 세운 가죽 공장이 있는데 룰리족에게 15개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공된 일자리보다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더 심각하다. 매일 4시가 되면 중국인들이 마을 가운데에 존재하는 유일한 강으로 쓰레기를 배출시킨다. 강이 오염됨에 따라 룰리 마을에는 잇따른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 안에는 약국이나 병원 등의 의료시설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다.⁵⁰

우즈벡 사마르칸트 룰리족은 월평균 10000숨에서 15000숨 정도(5,000원 ~7,500원 정도) 번다. 키르기즈 오쉬 룰리족은 월평균 826숨 정도(24,000원 정도)이다. 장기적인 직업이 있었던 집에는 더 높은 수입(919숨)이 있었고 정기적 직업이 없었던 집에 경우 낮은(776숨) 수입을 가졌다. 룰리족의 지출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지출이 숯 구입에 들어간다. 음식 값으로 들어가는 지출이 그 다음으로 많다. 또한 많은 부분이 전기와 물 값으로 들어간다. 분석 결과 룰리족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 책이나,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소품, 외식 등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는다. 즉, 룰리족은 삶에 꼭 필요한 지출만을 해결 할 뿐이다.⁵¹

4) 주요산품



<그림 Ⅲ-7> 마을에서 키우는 소

과 목화를 주로 제배하고 야채 중에서는 감자, 토마토, 양파, 옥수수, 등을 키운다.⁵²

가축을 키우는 룰리족도 있었다. 주로 키우는 가축은 소나 들소 같은 큰 뿔

룰리족 중에는 일부 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땅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되었는데, 그 이유는 농사 짓기에 땅이 너무 작거나, 물이 부족해서, 씨를 살 돈이 없거나, 농사를 짓는다 해도 이득이 별로 없어서, 혹은 농사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제배를 할 경우 밀

⁵⁰ Neweurasia www.neweurasia.net a-visit-to-the-luli-mahalla(검색일 2010년 2월 8일)

⁵¹ Save the Children, “오쉬에서의 룰리족의 삶의 환경과 공동체 생활”, (2004년 8월), 5.6 집안일 에서 발췌하였다.

⁵² Ibid.

달린 짐승과, 양이나 염소 같은 작은 동물 등이 있으며 가끔 드물게 새를 키우는 경우도 있었다. 가축을 키우는 주된 목적은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함이고, 그 외에는 잡아 먹기 위해 키운다.⁵³

5) 요약

룰리족 대부분이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직업이 없다. 남성들은 벽돌을 굽거나, 고무와 고철을 수거하여 팔고, 땅을 파는 등의 단순 노동력을 요구하는 일을 할 뿐이다. 여성들 또한 아이들과 함께 구걸을 하거나 머리카락을 잘라 파는 일을 한다. 룰리족 사람들이 안정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낮은 교육 수준과 이들에 대한 외부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다. 실제로 룰리족 사람들 중 소련의 공산주의 시절 이후 교육을 받는 사람은 16%에 그쳤으며, 외부인들은 그들을 구걸을 하고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여겼다. 따라서 이들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장기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선교 사역이 필요하며, 그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편견이 바뀌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5. 생활분야

1) 개요

우즈벡 사마르칸트 룰리족과 키르기즈 비쉬켄과 오쉬 룰리족은 대부분 하루를 5-6시에 시작 하고 소수는 7시에 시작한다. 제일 먼저 아내와 며느리가 일어나고 그 후 남편이, 그리고 노인들 순으로 일어난다. 부인은 먼저 마당을 쓸고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아이들이 마당청소를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종교적인 가정의 경우 아침을 기도로 시작한다. 아침 식사 후 모든 가족 일원들은 각자의 일을 하러 흩어진다: 아내는 “직장”으로, 중간 혹은 큰 아이들은 동물 돌보러(먹이를 주고, 우리를 치우고, 목동으로 나간다). 다수의 남성은 관습상 돈을 벌러오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남편들은 집에 남아 수리를 하거나 밭에 나가 일을 한다. 노인들 또한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나가 구걸을 한다. 노인들은 점심 전, 후로 집에 돌아온다. 주로 점심은 12-14시 사이에 먹는다. 부인들은 점심 때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보통 17-20시 때쯤 돌아온다. 저녁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TV를 시청한다. 어떤 집에서는 남편들이 친구들과 차를 마시러 나간다.

⁵³ Ibid.

거의 모든 집이 밤 10시에 잠에 든다⁵⁴.

룰리족 남성은 주로 집안일을 하거나, 밭에 나가 일을 하고, 가축을 돌본다. 우즈벡 사마르칸트 룰리족 남성의 경우 사마르칸트의 재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가로수를 심는 일 등의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남성이 일하지 않고 집에서 쉰다. 룰리족 여성은 주로 아이들과 함께 구걸을 하거나,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한다. 키르기즈 오쉬 룰리족 여성의 경우 고무와 고철을 수집하여 인근에 있는 중국 공장에 파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머리카락을 팔아 돈을 벌기도 한다.

키르기즈 오쉬 룰리족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버는 사람은 이발사, 가죽 손질, 목수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다.⁵⁵

2) 식생활

룰리족은 주식으로 논(Non)⁵⁶이라고 하는 빵을 먹으며 식사 때마다 차(茶)를 마신다. 논은 근처 시장에서 사먹는 경우가 많지만, 룰리족 중에서도 직접 집에서 논을 구워 먹는 사람도 있다. 시장에서 파는 논은 주로 밀가루로 만드는 것에 비해 집에서 논을 만들어 먹을 경우 비싼 밀가루 대신 집에서 직접 재배한 보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논을 먹을 때는 집의 연장자 혹은 어른 남성이 손으로 논을 찢어서 각 사람 앞에 놓는다.



<그림 III-8> 오쉬 (Osh)

룰리족은 외식은 거의 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아침 식사로 보통 논을 먹으며 차를 마신다. 우유, 요구르트, 버터, 치즈 등의 유제품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지 잘 섭취하지 않는다. 아침식사로 요리된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경우도 드물다. 저녁도 이와 같이 먹으며, 가끔 점심이나 저녁으로 채소나 토마토가 등장하기도 한다. 저녁에 모든 가족이 모였을 때의 식사는 보다 풍성하다. 논과

⁵⁴ Save the Children, “오쉬에서의 룰리족의 삶의 환경과 공동체 생활”, (2004년 8월), 6.9 하루의 일정에서 발췌하였다.

⁵⁵ Save the Children, “오쉬에서의 룰리족의 삶의 환경과 공동체 생활”, (2004년 8월), 6.9 하루의 일정에서 발췌하였다.

⁵⁶ 논(Non)은 원형 모양이며 둘레는 두껍고 가운데는 얇고 편편하며 표면에 깨나 향신료를 뿌려 만든 빵이다.

차 이외에도 오쉬(Osh)⁵⁷와 수프, 만두, 샐러드 등을 먹는다. 갓 태어난 아기와 노인들을 제외하면 구성원간의 식사 차별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의 식사는 항상 똑같고 부족하다.⁵⁸

손님을 대접할 때에는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대접하려고 노력한다. 주로 오쉬를 만들어 주는데, 주재료는 양고기 또는 소고기, 당근과 양파가 들어가며 부재료로 콩을 넣을 때도 있다. 아이들을 위해 선물로 들고 간 과자나 초콜릿도 아이들에게 주는 대신 손님에게 내어 놓는다. 롤리족 아이들은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상에 있는 음식을 집어먹지 않는다. 롤리족 대부분은 무슬림이만 술을 금기하지는 않는다. 손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손님이 마실 경우에만 함께 마신다.

3) 의복

롤리족 남성의 복장은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즈스탄에 사는 여느 남성처럼 자유롭다. 일반적으로 면 티에 긴 면바지를 입고 겨울에는 가죽 자켓 등을 입는다. 또한 다양한 모자를 쓰는데, 갈색 털모자를 쓰거나, 끝이 약간 뽕족하며, 검정, 빨강, 초록색으로 간단한 문형을 수놓은 칼팍이라는 모자를 쓰고, 토무즈라는 머리 윗부분만 가리는 작은 사각형 모양의 모자도 쓴다. 사람들은 검은 옷을 많이 입는데, 그 이유는 더 따뜻하고 더러운 것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⁵⁹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즈스탄의 젊은 여성의 경우 현대식의 자유로운 옷차림을 입지만 아직까지 롤리족 여성은 옷차림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이슬람 예절을 지킨다. 여성들은 대부분 발목까지 오는 알록달록한 원피스를 입고 그 안에 바지를 입는다. 하지만 입는 것은 남성의 옷차림으로 여기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치마만 입는 것 또한 허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리가 보이면 안되기 때문이다. 긴치마에 바지를 안에 입는 것만 지킨다면 그 외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입는다. 겨울에는 원피스 위에 스웨터나 자켓 등을 걸쳐 입는다. 머리는 ‘줄룩’이라고 불리는 천으로 감싼다.⁶⁰

일반적으로 롤리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옷이 상, 하의로 두 세벌씩밖에 없다. 특히 겨울에 입는 겉옷의 경우는 아예 없거나 한 벌밖에 없는 경우도 흔하

⁵⁷ 러시아어로 뽕몹(Плюб)이라고 불리는 이 음식은 쇠고기 또는 양고기와 당근, 쌀 등으로 만들며, 기름을 많이 넣어 만든 볶음밥과 비슷하다.

⁵⁸ Save the Children, “오쉬에서의 롤리족의 삶의 환경과 공동체 생활”, (2004년 8월), 5.7 건강과 음식 에서 발췌하였다.

⁵⁹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4권 2호(2009년 가을)

⁶⁰ Ibid.

게 있다. 옷은 시장에 가서 구입하기도 하지만 구걸하면서 얻는 경우가 더 흔한 듯 했다. 지난 3개월간 옷을 구입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신발은 검은색 고무신 같은 것을 주로 신었고, 겨울에는 두꺼운 등산화 같은 것을 신었다.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이 자주 신는 긴 부츠 같은 신발은 찾아볼 수 없었다.

4) 주거



<그림 Ⅲ-9> 대문 앞에 나와있는 사

이주하여 온 롤리족^{하둑}, 이들은 주로 세 들어 산다. 키르기즈스탄 비쉬켄에서 세를 들어 사는 롤리족은 자신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고 대답했으며, 집은 사마르칸트에 있다고 대답했다.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세들어 사는 롤리족은 한 사람 당 5,000숨(약 2,500원)을 내며, 키르기즈스탄 비쉬켄에 사는 롤리족은 어른은 80숨(약 2,400원), 아이는 40숨(약 1,200원)을 받는다고 한다. 마을을 형성하여 사는 롤리족은 직접 지은 집에서 산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거주등록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겪는다. 롤리족 마을이 있는 곳은 주로 도시에서 멀리 벗어난 외곽 지역이거나 시골인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심지에 롤리족이 거주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고, 또한 국가에서 롤리들을 위해 따로 지역을 구분하여 그 곳에 모여 살도록 했기 때문이다.

롤리족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진흙 벽돌집에서 산다. 대문은 크고 푸른색이 많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마당이 보인다. 하지만 집 뒤쪽으로 들어가야 마당이 있는 경우도 있다. 시골에 있는 집들은 도시 쪽에 있는 집들보다 마당이 더 크고, 이곳에서 소나 양, 닭 등의 동물을 키우기도 한다. 마당에는 수돗물이 나오는 곳이 있으며, 화장실이 집과 분리되어 따로 떨어져 있다. 화장실에는 문이 없거나 카펫 같은 천으로 막아져 있었다. 화장실은 나무바닥에 작은 구멍만 뚫려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다. 집 실내는 바닥보다 50cm 정도 높고, 방이 2개에서 3개 정도 있다. 중앙에는 우리나라 북쪽 지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주간 같은 곳이

있는데, 이곳에 화로가 있으며 화로는 난방기구이자 조리기구로 사용된다. 집 안에는 싱크대나 조리시설 등이 갖춰진 부엌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곳을 부엌처럼 사용한다. 집 벽은 매우 두꺼운데 비해 창문이 작기 때문에 실내가 비교적 어둡게 느껴진다. 창문이 깨져서 유리가 끼워지지 않은 곳도 많다. 실내 장식은 다른 이슬람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바닥과 벽에 양탄자를 장식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벽에 페인트 칠을 한다. 도시의 주거 문화는 침대 문화이지만 롤리족 사람들은 주로 바닥에서 생활한다. 음식도 바닥에 천을 깔고 차려먹고, 잠도 바닥에서 퇴색⁶¹을 깔고 잔다.

5) 위생의료

롤리족은 흐르는 물이나 공중위생시설이 없는 가난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석회수가 섞인 물을 그냥 마심으로 인해 치아상태가 매우 심각하게 부식되었다. 출산율과 유아사망률이 모두 높다.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화학비료로 인한 유독성 물질이 물을 오염시켜 만성질환을 유발한다. 길거리에는 쓰레기통이 따로 없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롤리족도 마을 가까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만, 여권이 있어야 한다. 소비에트 시절에는 병원 진료가 무료였지만 지금은 돈을 내야 한다. 롤리족이 사는 마을 근처에 약국이 없다. 약국에 가려면 오래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가야 한다.⁶²

키르기즈스탄 오쉬 롤리마을의 병원은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층 짜리 건물이다. 첫 번째 방은 의사 방이고 두 번째 방에는 필요한 장비들이 있다. 병원에는 3명의 의사와 2명의 간호사가 일하고 있다. 병원은 주로 아동 질병과 결핵을 치료한다. 병동 관계자들은 마을의 낮은 위생과, 여성들의 위생에 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마을 역시 근처에 약국이 없었다.⁶³

롤리족이 살고 있는 집에는 목욕실이 없었고, 뜨거운 물 또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롤리족 사람들은 씻기 위해 공중 목욕탕에 가는데, 돈을 지불하기 어렵기

⁶¹ 화려한 문양의 두꺼운 이불 같은 것으로써 직사각형으로 접어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이불로 사용한다.

⁶² 본 내용은 D선교사(53세, 우즈벡 사역자)와의 1월 1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⁶³ Save the Children, “오쉬에서의 롤리족의 삶의 환경과 공동체 생활”, (2004년 8월), 6.4 건강에 대한 문제에서 발췌하였다.

때문에 자주 가지 못하고 일주일에 1~2번 간다.⁶⁴ 옷도 마찬가지로 싼 세제와 비누로 가끔 빨래를 한다. 모든 집에는 화장실이 있으나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었다.

룰리족이 자주 걸리는 질병은 고혈압, 신장염, 폐염 등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사에게 진찰을 받지 못하고 민간요법을 사용하거나 스스로 약을 지어 먹었다.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위염과 척추신경염 등이 대부분이었다. 의사들은 유아 사망의 원인으로 결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병원에 따르면 대다수 룰리족의 질병은 부실한 식사(결핵, 갑상선, 빈혈)와 지저분한 위생 상태(여성 질환, 창자 질환) 때문이라고 한다. 절반 이상의 아동들이 정상적인 발육에 미치지 못하는 데 그것은 충분한 고기와 우유, 달걀, 비타민 등을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⁶⁵

6) 환경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룰리족이 사는 마을은 조용하며, 시골과 같은 풍경을 자아냈다. 집에는 부엌이 따로 없어서 방에 있는화로 위에 솥을 올려놓고 음식을 하거나, 바깥에서 불을 지펴놓고 한다. 전기도 공급이 되지만 자주 정전이 된다. 집안에는 수도시설이 없고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공급받는다. 물이 끊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석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수돗물을 그대로 식수로 이용해서 치아가 잘 부식된다. 가스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는다. 하지만 가스 또한 자주 공급이 끊어진다.

키르기즈스탄 오쉬 룰리족이 사는 마을에는 강이 있다. 하지만 근처 중국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하여 오염이 심각하다. 하지만 룰리족 아이들은 오염된 강에서 놀며, 오염에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개울로 흘러 들어가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마신다. 이 마을에 있는 도로 중 15% 만이 아스팔트 처리되어 있다. 이것은 아동의 잦은 질병, 옷과 신발이 빨리 닳고 헤어짐, 아동의 학교 불참, 학교 건물 바닥에 침투된 물로 인한 붕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⁶⁶

이 마을에 있는 집에도 부엌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방에 있는화로에서 음식을

⁶⁴ 본 내용은 자르니고르(16세,여, 룰리, 사마르칸트)와의 1월 4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⁶⁵ op. cit.

⁶⁶ Save the Children, “오쉬에서의 룰리족의 삶의 환경과 공동체 생활”, (2004년 8월), 4.1 당시상황 묘사 에서 발췌하였다.

하거나 마당에서 불을 지펴 요리를 한다. 전기가 공급되기는 하지만 자주 정전이 된다. 수도는 이보다 상태가 낫지만 따뜻한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도 그냥 차가운 물을 이용한다. 식용 물을 위한 장치는 아예 없다. 가스는 마을 전체에 공급이 되지 않는다. 길거리에 쓰레기 통이 없다. 쓰레기는 집에서 태우거나 마을 한 구석에 따로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버린다. 하지만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가 마을까지 들어오지 않는 듯 했다.

7) 교통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버스인 압토부스(Avtobus)나 택시, 마르슈르트카(Marshrutka)⁶⁷라고 불리는 미니 버스와, 트람바이⁶⁸(Tramvay)라고 하는 전차 등이 있다. 사마르칸트 물리족은 가까운 거리라면 되도록 걸어서 다니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경우 압토부스나 택시를 이용한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미터기를 이용하여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탈 때 목적지를 말한 후 거리에 따라 가격을 흥정하고 타면된다. 물리족 중에서도 최상층은 자가용이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주요 교통수단도 우즈베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압토부스와 택시, 마르슈르트카 등이 있으며 비쉬켄에는 트랄레이부스(Trolleybus)⁶⁹가 있다. 교통수단의 요금은 지역마다 다르다. 이곳에서도 택시를 탈 때 요금을 흥정하고 탄다. 키르기즈스탄 오쉬마을에는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마르슈르트카가 있으며 사람들은 주로 마르슈르트카를 이용한다. 이곳에서도 최상층의 물리족은 자가용이 있다.

8) 대중매체 보급률

물리족이 사는 마을에는 전기가 공급되기는 하지만 자주 정전이 된다. TV는 거의 모든 가정에 있는 듯 하다. DVD도 많이 보급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집

⁶⁷ 개인이 운영하는 소형 밴 크기의 버스로 되어있다.

⁶⁸ 기차처럼 생겼으며, 전기로 움직인다. 길

⁶⁹ 일반 버스처럼 생겼고 트람바이와 같이 도로 위를 다닌다.



<그림 Ⅲ-11> 시판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에 컴퓨터가 있는 가정도 발견할 수 없었다. 전화기가 있는 가정도 없었다. 대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있었다. 일반적으로 TV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롤리족 남성들은 여가시간에 TV를 보며 보낸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9) 요약

롤리족의 질병은 부실한 식사와 지저분한 위생 상태 때문이라고 한다. 부실한 식사로 인해 절반 이상의 아동들이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하고, 자주 앓는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학비를 대줄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옷을 살 수 없어서 입을 옷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롤리족 대부분 수리가 필요한 집에서 살고 있다. 창문에는 유리가 끼워지지 않은 집도 있으며 지붕이 새기도 한다. 중산층과 빈곤층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은 바닥에서 먹고 자는데, 이나 벼룩과 같은 벌레들이 발견되었다. 거의 모든 가정에 TV가 보급되어 있었고, DVD도 비교적 많이 보급되었다.

따라서 롤리족은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 식, 주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삶의 여건이 이렇다 보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해 기본적인 물품을 제공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필요하며, 또 DVD가 있는 가정이 많으므로 영상매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6. 문화분야

1) 개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롤리족은 각각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살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소련으로부터 독립 한 후 나라의 정체성을 이슬람과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롤리족 문화의 대부분도 이슬람과 관련이 있다.

롤리족의 문화는 그들이 살고 있는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다른 민족과 함께 사는 롤리족은 우즈베크 민족과 자신들을 동일화하고 싶어하며 자신들의 모든 문화를 우즈베크화 하는 모습을 보이고 키르기스스탄 오쉬 외곽에서 자신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사는 롤리족의 경우는 전통 문화

들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

2) 예술

롤리족은 노래하고 춤 추는 것을 좋아해서 생활하는 가운데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춘다. 하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롤리만의 고유한 춤이나 노래는 없다. 특히 우즈벡 롤리족이 추는 춤과 부르는 노래는 모두 TV나 DVD를 통해 익힌 우즈벡의 것이다.⁷⁰ 그러나 몇몇 롤리족 사람들은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아 춤을 추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여기기도 한다.⁷¹

롤리족의 전통의상은 물탄에 살고 있는 롤리들에게는 남아있지만 중앙아시아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롤리족에게는 남아있지 않다.⁷²

아무르띠무르에 의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끌려온 롤리족의 선조들은 예술가나 건축가 계층이었지만 티무르제국 이후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전통 문화를 이어받지 못하고 구걸을 하며 살게 되었고, 현재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롤리족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걸을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통을 세습시키고 있다. 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집집마다 찾아 다니며 구걸한다.⁷³ 그러나 구걸을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직장이 생긴다면 구걸하는 전통을 지키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다.⁷⁴

3) 특수 절기

(1) 명절

우즈벡 롤리들은 자신들만이 지키는 명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즈벡 명절만을 따르는데 반해 키르기즈 롤리들은 키르기즈의 대표적인 명절인 나우르즈도 지키고 롤리만의 명절도 지킨다⁷⁵.

⁷⁰ 본 항목은 자르니고르(16세, 여, 롤리, 우즈베키스탄 거주)와의 1월 4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⁷¹ 본 항목은 글로자 (27세, 여, 롤리, 우즈베키스탄 거주)와의 1월 8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⁷² op. cit.

⁷³ 본 내용은 G선교사(35세, A소속, 우즈벡 사역자)와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⁷⁴ 본 항목은 라프루즈 (26세, 여, 롤리, 우즈베키스탄 거주)와의 1월 8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⁷⁵ 이 명절은 키르기즈 롤리족 중 오쉬에서 마을을 이루고 사는 롤리족에게만 해당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는 중앙아시아에서는 새해를 매우 크게 축하하는데, 이슬람에서는 이것을 나우르즈라고 부른다. 키르기즈 롤리족은 나우르즈 전날 모여 춤을 추며 명절을 축하하고, 2월 15일부터 20일 정도까지를 자신들만의 고유 명절로 지키고 있다. 이 명절은 물탄에서부터 전해 온 명절로, 이 기간 동안에 여인들은 장신구를 만들거나 헤나(henna)로 손톱과 손등, 손바닥 등을 물들여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보인다.⁷⁶ 헤나는 우리나라의 봉숭아 물 들이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써 가루를 차(Tea)에 섞어 걸쭉하게 만든 다음 면봉이나 이쑤시개로 나타내고 싶은 모양을 그리거나 물들이고 싶은 부분에 묻힌다. 이것은 우즈베크 전통이기 때문에 키르기즈에 사는 우즈베크인도 한다.⁷⁷ 그러나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마을을 이루지 못하고 현지인의 집에 세들어 살아가는 롤리들은 이러한 명절을 자신들끼리 지키지 못한다. 이들은 명절에 더 많은 집집마다 찾아 다니거나 식당 등을 찾아 다니면서 구걸한다.⁷⁸ 이 때뿐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라마단 기간 중에도 구걸하는 롤리족의 숫자가 늘어난다.⁷⁹

(2) 할례

롤리족은 할례를 결혼식보다 성대하게 치른다. 이 때는 수입에 상관 없이 모든 가족들이 행사를 위해 돈을 많이 쓴다. 빈곤층과 극빈층은 이 할례 행사 후 오랫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⁸⁰ 우즈베크 롤리족은 7세 이전까지 키르기즈 롤리족은 3세부터 5세까지의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받는다. 할례는 할례 담당자가 와서 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쉬켈에 흠어져 사는 롤리족은 이러한 명절을 가지고 있지 않다.

⁷⁶ 본 항목은 바하드르 (50세, 남, 롤리지도자, 우즈베키스탄 거주)와의 1월 16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⁷⁷ 본 항목은 자르니고르(10대, 롤리, 여, 키르기즈스탄 오쉬 거주)와의 1월 16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⁷⁸ 본 항목은 J사역자(38세, 현지인사역자, 여, 키르기즈스탄 비쉬켈 거주)와의 1월 19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⁷⁹ 본 항목은 K아주머니(50대 후반, 민박집 운영, 여, 키르기즈스탄 비쉬켈 거주)와의 1월 18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⁸⁰ Save the Children, “오쉬에서의 롤리족의 삶의 환경과 공동체 생활”, (2004년 8월) 에서 발췌하였다.

슬람식으로 진행한다.⁸¹ 키르기즈 롤리족은 이러한 이슬람식 할례 행사에 추가적으로 초대받은 친척들이 아이의 부모에게 실에 땀 돈을 목에 걸어주는 행동을 한다. 이때 모아진 돈 1만숨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⁸²

(3) 놀이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의 롤리족은 공통적으로 랑가를 즐긴다. 랑가는 우리나라의 제기차기와 비슷한 놀이로 병뚜껑과 실, 말꼬리 등으로 만들거나 잔디를 뿌리 채 뽑아서 발로 연속해서 차는 놀이이다. 키르기즈스탄에서는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노는 모습도 볼 수 있다.

4) 결혼과 장례, 출산

(1) 결혼

롤리족의 결혼 모습은 주변 민족의 결혼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롤리족은 여자는 14세부터, 남자는 15세부터 결혼을 한다.⁸³ 현지 다른 민족들과 비슷하게 식당이나 집에서 오쉬를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결혼식을 하고 돈이 있으면 가수를 초청하기도 한다.⁸⁴ 롤리족 남자는 타민족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지만 롤리족 여자는 타민족과 결혼하지 않는다.⁸⁵ 여자들도 타민족과 결혼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정식 아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⁸⁶

우즈베크 롤리족은 결혼을 할 때는 부모의 허락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경우 도망가서 살기도 한다. 그 후에 아이를 낳아서 돌아오면

⁸¹ 본 항목은 무샤라프(50대, 여, 롤리, 우즈베키스탄 거주)와의 1월 7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⁸² 본 항목은 J사역자(38세, 여, 현지인사역자, 키르기즈스탄 비쉬켄 거주)와의 1월 19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⁸³ 본 항목은 자르니고르(16세, 여, 롤리, 우즈베키스탄 거주)와의 1월 4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⁸⁴ 본 항목은 무샤라프(50대, 여, 롤리, 우즈베키스탄 거주)와의 1월 7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⁸⁵ 본 항목은 기리쉬(35세, 남, 롤리, 우즈베키스탄 거주)와의 1월 10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⁸⁶ 본 항목은 J사역자(38세, 여, 현지인사역자, 키르기즈스탄 비쉬켄 거주)와의 1월 19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부모들도 그들의 결혼을 인정해 준다고 한다.⁸⁷ 결혼하고 이혼할 때는 법적인 절차를 따로 밟지 않는다. 혼인신고는 모스크에 함께 다녀오는 것으로 대신하고, 이혼은 따로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 신부가 친정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⁸⁸

키르기즈 롤리족은 신부를 납치하여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 결혼식 행사는 그렇게 크게 열지 않는다. 이들은 인도에서 가지고 있던 결혼 풍습을 조금 가지고 있다. 결혼식 때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 친척여인 두 명이 신부를 데리고 불 주위를 돈 후 남편이 부인을 업고 집으로 들어간다. 이 풍습은 부부가 불처럼 따뜻한 사이가 되기를 기원하는 행동이다. 부부의 건강을 위해 이스르크를 태운 연기를 쏘이게 하기도 한다.⁸⁹ 또 결혼할 때 신부가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선언을 한다.⁹⁰

(2) 장례

롤리족의 장례문화는 한국의 장례문화와 비슷하다. 죽은 사람을 씻기고 옷을 입힌 후 무덤을 만들 곳으로 이동한다. 우즈베크 롤리족은 성지라고 여겨지는 샤흐진다 주변 자리에 무덤을 만든다. 무덤을 만드는 곳의 땅값은 사는 사람이 정하고 무덤에 비석을 세우는 데는 5만숨 정도가 든다.⁹¹ 키르기즈 롤리족은 무덤이 많이 있는 술레이만 산이 아닌 외진 장소에 묻는다.⁹² 장례식은 사람이 죽은 후 3일 동안 계속되고 이 때는 집 한 칸에서 먹을 것을 차려놓고 함께 먹는다. 고인의 기일이 돌아오면 양이나 말, 소를 잡아 먹는다.⁹³

⁸⁷ 본 항목은 자릿바(33세, 여, 롤리, 우즈베키스탄 거주)와의 1월 4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⁸⁸ 본 항목은 자르니고르(16세, 여, 롤리, 우즈베키스탄 거주)와의 1월 4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⁸⁹ 본 항목은 바하드르(50세, 남, 롤리지도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거주)와의 1월 19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⁹⁰ 본 항목은 J사역자(38세, 여, 현지인 사역자, 키르기즈스탄 비쉬켄 거주)와의 1월 19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⁹¹ 본 항목은 무샤라프(50대, 여, 롤리, 우즈베키스탄 거주)와의 1월 7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⁹² Neweurasia, www.neweurasia.net(검색일: 2009년 12월 27일)

⁹³ 본 항목은 바하드르(50세, 남, 롤리, 키르기즈스탄 거주)와의 1월 16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3) 출산

여권이나 각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롤리족 여성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다. 특히 우즈베크는 나라 차원에서 출산을 매우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임신한 롤리족 여성에대한 병원의 태도는 좋은 편이다. 임신여부는 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고, 초음파검사를 통해 아기 성별도 알 수 있다.⁹⁴ 아이의 이름은 두 나라 모두에서 우즈베크식으로 짓는다.⁹⁵

5) 예절

우즈베크와 키르기즈의 롤리족 모두 현지어로 인사하기도 하지만 인사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아쌀라무 알레이쿰(Assalamu alaikum)”(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이슬람식의 인사를 더 많이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알레이쿰 아쌀라무’라고 답한다. 한국에서처럼 배에 손을 얹고 허리를 굽혀 하는 인사는 결혼할 때 신부가 하는 인사다.⁹⁶

롤리족은 사람을 초대하고 음식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다. 손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먹을 것을 내어준다. 초대를 받았을 때는 견과류나 사탕 등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6) 금기

대부분의 롤리족은 자신을 이슬람 신자라고 말하며, 이슬람 율법에 저촉되는 것들을 금기로 정하고 있다. 롤리족의 여자들은 바지만 입으면 안되기 때문에 항상 긴 치마와 긴바지를 함께 입고 머리에 줄룩을 매는 이슬람 전통복장을 하고, 여름에도 민소매와 짧은 치마를 입지 못한다.⁹⁷

7) 관광지

⁹⁴ op. cit.

⁹⁵ 키르기즈에서 살던 롤리족들은 우즈베크에 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⁹⁶ 본 항목은 글로자(27대, 롤리, 여, 우즈베키스탄 거주)와의 1월 8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⁹⁷ 본 항목은 글로자(27대, 롤리, 여, 우즈베키스탄 거주)와의 1월 8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1)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⁹⁸

① 레기스탄(Registan Complex)

사마르칸트는 지금의 레기스탄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재형성되었다. 티무르는 이 도시를 자신의 제국에 어울리는 세계 제일의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자 하였다. 원정을 가면 반드시 그 지역의 유명한 건축가나 예술가를 데리고 와서 도시 조성에 참여시켰다.

레기스탄은 세개의 건축물- 왼쪽의 울룩베크 메드레세(Ulughbek Madrassah)⁹⁹ 오른쪽의 셰르도르 메드레세(Sherdor Madrassah) 그리고 가운데의 틸라코리 메드레세(Tillyakari Madrassah)로 구성되어있다. 건물 내부에는 옛날에 이슬람 학교의 기숙사로 쓰인 방들이 있는데, 지금은 비어있거나 기념품을 팔고 있다.



<그림 Ⅲ-12> 레기스탄

② 구르아미르(Gur Emir Mausoleum)

구르 아미르는 ‘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아미르 티무르와 그의 아들, 손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묘이다. 예전에는 묘의 오른쪽에 나그네들의 숙소와 예배를 올리는 곳으로 쓰였던 하나코, 왼쪽에는 30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2층짜리 신학교 건물이 있었고, 4개의 첨탑이 있었는데 지금은 2개의 첨탑(미나렛, Minaret)과 중앙 묘만 남아있다.

정문은 수많은 타일들이 모여 문양을 이루는 모자이크 방식으로 꾸며졌다. 정문의 바로 밑을 지날 때 천장을 보면 커다란 5개의 오각형 별을 볼 수 있다. 이는 무슬림이 지켜야 하는 5개의 계율¹⁰⁰을 상징한다.

③ 비비하눔 모스크(Bibi-Khanim Mosque)

푸른돔과 전설로 유명한 비비하눔 모스크는 가장 위대하고 장대한 모스크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한 아무르 티무르가 직접 건축을 지휘하여 만들어진 건물이다.

⁹⁸ 사마르칸트, 주 우즈베키스탄 KOICA사무소

⁹⁹ 이슬람 신학교라는 뜻이다.

¹⁰⁰ 알라가 유일신임을 믿을 것,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것, 라마단(한 달간의 금식 기간)을 지킬 것, 수입 중 일부를 사회에 기부할 것, 일생에 한 번 성지 순례를 할 것, 이렇게 5가지를 포함한다.

이를 위하여 현지 건축가들을 비롯하여 저명한 예술가, 건축가, 벽돌을 만드는 명공들을 인도나 이란 등의 나라에서 불러왔다. 이 대목에서 롤리족이 아무르 티무르에 의해 사마르칸트로 강제 이주 되어 건축물을 짓는데 동원 된 것을 설명 할 수 있다.

사원이 세워졌을 당시에는 뜰에서 예배를 드리며 코란을 읽었기 때문에 뜰 중앙에는 코란을 받치기 위한 돌경대가 있다. 코란 경대를 3번 돌면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민간신앙 때문에 기도하며 경대를 도는 여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④ 샤흐진다(Shahi-Zinda Complex of Mausoleums)

샤흐진다는 묘가 들어있는 여러 건물들이 한 길을 따라 늘어서 있는 마치 작은 마을과 같은 모습이다. 샤흐진다는 ‘살아 있는 왕’이라는 뜻으로 메카의 시장이자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사촌 쿠삼 이븐 아바즈(Kusam ibn-Abass)에 얽힌 전설에 의해 붙게 된 이름이다. 그는 이슬람의 선교사로 선교를 목적으로 사마르칸트에 왔다가 기도하던 중 이교도에 의해 목이 잘렸는데, 자신의 잘린 목을 들고 지반의 틈으로 생긴 우물로 유유히 걸어 내려갔고, 지하의 길을 통해 천국으로 가서 아직도 거기에 살아있다고 한다. 바로 이 전설 때문에 그와 이 영묘는 ‘살아있는 왕’이란 뜻의 샤흐진다가 되었다. 이후 왕이나 힘있는 귀족은 이곳에 건물을 짓거나 친척을 안장하는 일을 큰 영광으로 삼았다.

샤흐진다의 주변으로 일반인들의 무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성인의 무덤 곁에 묻히면 천국에 간다는 수피 이슬람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⑤ 알 부하리

사마르칸트에서 25km 떨어진 첼렉이라는 작은 도시 근처에 위치한다. 이슬람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하디스 모음집의 저자 알 부하리를 기리는 건축물이다. 하디스(hadith)란 마호메트의 언행을 기록한 종교적인 어록으로, 무슬림은 코란과 더불어 하디스에 기록된 마호메트의 언행에 따라 행동함을 삶의 기반으로 한다. 알 부하리는 7,300여 개의 하디스를 정리하여 이를 모음집으로 만들었는데, 이 모음집을 만들기 위해 무려 천여 명에게 물어보고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 이곳은 9세기부터 이미 이슬람 세계에서 성지로 추앙 받아 성지 순례를 오는 행렬이 줄을 잇는다.

(2) 키르기즈스탄 오쉬

① 슬레이만산¹⁰¹

¹⁰¹ Mission Possible, www.goodnews.co.kr/cksik/3.htm

도심 중앙에 자리잡은 숄레이만(Suleyman) 산은 솔로몬 왕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갔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 산을 거룩한 곳으로



<그림 Ⅲ-13> 숄레이만산

여기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솔로몬이 기도 했던 장소에 세워진 작은 기도 처를 찾는다.

산 귀퉁이를 돌면 산을 뚫어 만든 박물관이 있는데 그 곳에는 오래 전부터 살았던 흔적이 있는 유물들을 전시해 놓고 있다. 박물관 위쪽으론 실제 사람들이 동굴 생활을 했던 동굴이 있으며, 그 아래 부분으론 동굴에서 나

와 정착생활을 위해 집을 짓고 살았다는 터전도 있다.

산 남쪽 언저리에는 무슬림만 묻힐 수 있는 묘지가 있는데 무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샤흐진다와 같이 성스러운 곳에 묻히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람들의 신앙이 잘 드러난다.

8) 요약

롤리족의 문화는 상당부분이 현지화 되어있어서 대부분이 이슬람 문화이고 주변 민족들의 문화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타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롤리족에 대한 편견과 스스로가 부여한 외톨이의 정체성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주변 사회와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롤리족의 모습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교육분야

1) 개요

롤리족은 한 가족 당 5명에서 6명의 자녀를 낳는데 이 중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보통 남자아이 1명에서 2명 정도이다.¹⁰²

¹⁰² 본 항목은 바하드르 (50세, 롤리지도자, 남, 우즈베키스탄 거주)와의 1월 16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우즈벡 톨리족은 모국어로 교육받는 권한이 없어서 우즈벡학교에 다녀야 한다. 하지만 마을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경우에는 그룹의 남자만 여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권문제로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여권이 있더라도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입학하기가 쉽지 않고, 입학했다 하더라도



차별을 받거나 적응을 하지 못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교육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우즈벡족이나 타직족이라고 속이고 받기도 한다.¹⁰³

키르기즈 톨리족은 마을에 민족 학교가 있긴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는 시간에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

2) 현황

우즈베키스탄은 9학년(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까지를 의무교육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¹⁰⁴ 톨리족을 위한 민족학교는 존재하지 않아서 다른 민족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데 ¹⁰⁵학교에서 톨리족을 찾아 보기가 어렵다. 구걸을 해야 해서 이름만 올려놓고 학교를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¹⁰⁶ 톨리족은 주로 남자만 교육을 받는다. 학교에 다니려면 입학할 때 15,000숨에서 20,000숨(약 10\$) 정도를 내야 한다.¹⁰⁷

키르기즈스탄은 초등학교는 7살에 들어가고 12년제이다.¹⁰⁸ 오쉬 톨리족의 마을에는 국가에서 세워준 10년의 역사를 가진 톨리족을 위한 민족 학교가 있다. 학교 교사들은 우즈베크인, 키르기즈인, 러시아인으로 구성되고 입학 시 돈을 내지

¹⁰³ Neweurasia, www.neweurasia.net (검색일: 2009년 12월 27일)

¹⁰⁴ 본 항목은 C선교사(60대, 여, 우즈벡 사역자)와의 12월 29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¹⁰⁵ 본 항목은 무샤라프 (50대, 여, 톨리, 우즈베키스탄 거주)와의 1월 7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¹⁰⁶ 본 항목은 J선교사 (30대, 여, 우즈벡 사역자)와의 1월 4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¹⁰⁷ 본 항목은 무샤라프 (50대, 여, 톨리, 우즈베키스탄 거주)와의 1월 7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¹⁰⁸ 본 항목은 아크마랄 (22세, 여, 통역, 키르기즈스탄 거주)와의 1월 16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않는다. 학교는 9년제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2년 동안 다른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한다. 이 점 때문에 대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교를 나오는 사람의 2%를 채 넘지 않는다.¹⁰⁹ 오쉬에 살지 않고 사는 다른 롤리족 아이들은 보통 4학년 정도까지 학교를 다니는데, 무료는 아니다.¹¹⁰

3) 인식

롤리족 사람들은 자식들이 교육을 받아서 직업을 가졌으면 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싶어 하고 교육을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¹¹¹ 아직까지는 여자가 교육받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¹¹²

4) 대학

우즈베키스탄의 대학은 일반적으로 여름방학은 2개월이고 겨울방학은 새해 연휴를 포함하고 1주일이다. 대학교 학비는 1년에 200만숨(약 1000\$)이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돌아가게 되는데, 입학할 때의 성적으로 장학생과 비장학생이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재학 중 성적과는 상관없이 졸업할 때까지 적용된다.

사마르칸트에는 일리야스 외국어 대학교가 있는데, 이곳에는 한국어 과가 있다. 교수는 코이카소속 한국인 3명과 현지인 3명이고, 학생 수는 250명이다. 여러 민족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크게 러시아그룹, 우즈베크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공과목 외의 과목을 각각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로 배운다.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우즈베크내에서 전공을 살려 취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한국어과 학생들은 더 많은 한국기업의 우즈베크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¹¹³ 일리야스 외국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롤리는 없고, 다른 대학교에도 롤리족이 다니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키르기즈스탄의 대학 학비는 일년에 86,000숨(약 2000\$)이다. 키르기즈스탄 현지 물가에 비하면 매우 큰 돈이다. 장학금 혜택은 매우 적은수의 사람에게만 돌

¹⁰⁹ op. cit.

¹¹⁰ 본 항목은 J사역자(30대, 여, 현지사역자, 키르기즈스탄 거주)와의 1월 19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¹¹¹ op. cit.

¹¹² 본 항목은 이조브 (61세, 남, 롤리마을 이장, 우즈베키스탄 거주)와의 1월 9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¹¹³ 본 항목은 J선교사(30대, 여, 우즈베키스탄 거주)와의 1월 4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아가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대학교에 진학하기가 힘들다.¹¹⁴ 키르기즈스탄의 학비는 한국이나 러시아 대학의 학비보다는 싼 편이기 때문에 키르기즈스탄의 수도권 비쉬켄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많이 있다. 이들은 주로 음악이나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현지 한인교회를 통해 뭉친다.¹¹⁵

5) 요약

룰리족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드물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구걸을 하고 있거나 마을 골목골목에서 놀고 있다. 룰리족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거나 그들이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며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동안 다른 민족들로부터 따뜻한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던 룰리족의 마음을 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룰리족 중 대학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만나본 경우는 없었다. 또 대학교 교육까지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룰리족에게는 규칙적으로 돈을 얻을 수입원이 없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적기 때문에 대학교 교육까지 받는 것이 더욱더 힘들다. 대학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전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8. 종교분야

1) 개요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민족들은 룰리족을 불교나 불을 숭배하는 종교¹¹⁶ 혹은 무교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룰리족은 자신들이 모두 무슬림이라고 주장한다.¹¹⁷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게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종교 이상의 문화적, 전통적 의미

¹¹⁴ 본 항목은 아크마탈 (22세, 통역, 여, 키르기즈스탄 거주)와의 1월 16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¹¹⁵ 본 항목은 K아주머니(50대 후반, 민박집 운영, 여, 키르기즈스탄 비쉬켄 거주)와의 1월 18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¹¹⁶ 룰리는 그들 스스로를 'Mughat'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fire-worshipper'를 뜻한다.

¹¹⁷ 본 내용은 무샤라프(50대,여,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룰리)와의 1월 7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를 가지기 때문에 우즈벡 사람들과 동화되기를 원하는 룰리족으로써는 자신들의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이들은 구걸을 할 때 이슬람적으로 복을 빌어주며, 여성들의 복장에 대해 이슬람 식(두건, 긴 소매를 가진 치마)의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다.¹¹⁸

키르기즈 오쉬의 룰리족도 자신들은 무슬림이라고 말한다.¹¹⁹ 하지만 마을을 이루지 않고 적은 수의 가족끼리 모여 사는 비취켄 룰리족의 경우에는 종교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 키르기즈 룰리족들도 불을 숭배한다는 소문은 돌고 있지만 실제로 확인된 바는 전혀 없다.¹²⁰

2) 종교현황

(1) 제1의 종교 - 이슬람

우즈베키스탄의 약 90%에 해당하는 국민이 이슬람을 신봉한다. 소수민족들은 그들만의 모스크가 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는 제 2의 이슬람 성지로 불리고, 많은 이슬람유적들이 있다. 이슬람 유적지로는 신학교, 무덤, 모스크 등이 있고, 각 유적지의 들어가는 문 위에는 코란 구절들이 적혀져 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죽은 자의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을 만지며 기도하는 수피 이슬람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샤머니즘과 융합된 성격의 이슬람이다.

(2) 제2의 종교 - 러시아 정교¹²¹

러시아정교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포교활동을 할 수는 없다.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교회 안에는 초를 꽂는 곳이 있어서, 사람들은 초를 꽂고 죽은 이를 위해



그림 표-15> 타슈켄트 러시아정교

¹¹⁸ Fravahr.org, www.fravahr.org(검색일: 2009년 12월 26일)

¹¹⁹ 본 내용은 바하드르(50세, 남, 이맘, 키르기즈 오쉬 룰리 지도자)와의 1월16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¹²⁰ Neweurasia, www.neweurasia.net(검색일: 2009년 12월 26일)

¹²¹ 본 내용은 A선교사(70대 초반, 룰리족 사역자)와의 12월 3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기도한다. 이는 수피 이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들은 기도할 때 성경의 인물들에게 하기도 한다.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예배를 드리고, 무슬림이 교회에 오는 것은 자유이다. 다른 종교와의 갈등은 없다.

3) 종교특징

우즈베키스탄의 무슬림 중에서 약 70%는 우즈베크인들로 수피에 속하고, 20%는 우즈베크인 일부와 타직인들로서 시아파에 속한다. 수니파 교도들은 튀르크 민속 신앙과 혼합되어 매우 세속적이고 미신적이나, 시아파는 이란 혁명의 영향으로 비교적 열성적이다. 우즈베크인들에게 이슬람은 종교의 의미는 물론이고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주요한 문화적 요소이다.

키르기즈스탄 역시 70년간의 공산지배에도 불구하고 현재 75%가 무슬림이다. 러시아 지배의 영향으로 러시아 정교가 20% 점하고 있으며, 독립 이후 기독교 등 기타 종교가 그 세를 확장하고 있다가 최근 종교법 개정으로 인해 포교활동이 금지되면서 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키르기즈스탄 이슬람 역시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과 같이 수피 계통이라서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강하다. 실례로 성지라고 소문난 곳 근처에는 무덤이 즐비하고, 만지기만 해도 병에 효과가 있다는 돌은 매끈하게 달아있다.

4) 종교지도자

이맘

우즈베키스탄에는 12 개의 이슬람 대학이 있다. 여성들을 위한 이슬람대학 으로는 3 개가 있으며, 여성들은 이맘이 될 수 없다.

우즈베키스탄의 룰리마을 가까운 곳에 모스크가 있지만 룰리 중에 이맘은 없다. 키르기즈스탄 룰리마을에는 룰리 이맘이 있는데, 마을 지도자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이곳의 이맘은 이맘이 되기 위해 신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 이맘이 되었고, 후계자도 양성하고 있다.¹²²

¹²² 본 내용은 바하드르(50세,남,이맘,키르기즈 오쉬 룰리 지도자)와의 1월16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5) 요약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특징은 미신적인 요소가 많은 수피즘이라는 것이다. 병을 고치거나 저주를 풀어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신봉되는 성스러운 장소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성인들의 무덤 앞에 돈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 꿈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룰리족은 자신들을 무슬림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종교적 행위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저 자신들을 현지 민족들과 동화시켜, 좀 더 나은 지위에서 차별 받지 않고 살고 싶어했다.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민족들에게 도둑, 거지로 오해 받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온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교제하며 베풀고 기술들을 가르쳐줄 그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 열리길 기대한다.

9. 기독교 상황[우즈베키스탄]

1) 기독교 개요

우즈베키스탄은 인구의 약 90%에 해당하는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이다. 우즈베크에서 외국인의 신앙은 자유지만, 포교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2009년 1월에 발표한 '기독교박해국가리스트'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10위에 해당한다. 123 선교사들은 비자 및 체류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즈베크에 사는 순수 우즈베크인의 복음화율은 0.1%도 되지 않는다.¹²⁴ 계속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비방하는 방송이 방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기독교 현황

룰리어로는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다. 몇 년 전에 사역자들이 성경을 룰

¹²³ 한국오픈도어선교회, www.opendoors.or.kr

¹²⁴ 본 내용은 G선교사(35세, A소속)와의 1월 1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리 언어로 번역하여 오디오 파일을 만든 바 있지만, 파일은 보급되지 못한 채 만든 이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키르기즈어, 우즈베크어로는 친구약 모두 번역되어 있다.

신앙서적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통해 들어온다. 우즈베크, 타직어로 쓰인 신앙서적은 이를 금지하는 법이 있어서 만들지 않는다. 기독교 방송으로는 카자흐스탄 CNL, 러시아 TBN, 한국기독교방송 CGNTV를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따로 안테나를 달아야 한다. 그러나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일반인이 접하기는 어렵다.¹²⁵

타슈켄트, 사마르칸트를 제외한 타지역에는 한국인 사역자가 없다. 현재 사마르칸트의 교회들은 현지인 목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마르칸트의 전체 기독교인은 1200여명이다. 정부는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는 허가 내주지 않고 고려인, 러시아인들을 위한 교회만 허가 내준다. 우즈베크인, 타직인은 교회에 등록할 수 없다. 소수 민족들을 위한 교회는 없는 실정이다.

교회에 경찰이 불시에 오기도 한다. 정부의 강한 탄압으로 인해 현지 크리스천들은 믿음을 어렵게 유지해 나가고 있다. 사역자들은 비즈니스나 교육자의 신분으로 들어와 있다.¹²⁶

3) 기독교 인식

국가적 차원에서 기독교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는 없으나, 현 카리모프 정부는 기독교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영상들을 TV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영하여 국민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주입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정부는 외국인파 NGO 자원 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¹²⁷ 무슬림은 교회 창문에 돌을 던지는 등 교회에 잦은 횡포를 부린다.

우즈베크에서는 외국인의 신앙은 자유지만, 포교는 엄격하게 금지된다.¹²⁸ 만약 포교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현지 목사는 3~8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선교사는 추방을 당한다. 또한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평균 근로자 임금의 200~6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아이들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학교에서 쫓겨난다. 정부의 강한 탄압으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우즈베크인이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¹²⁵ 본 내용은 N 사역자 (70대, 남, 우즈베크 사역자)와의 1월 10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¹²⁶ 본 내용은 J 선교사(40대, A 소속, 우즈베크 사역자)와의 1월 10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¹²⁷ op. cit.

¹²⁸ 본 내용은 현지인(20대 중반, 여, 통역, 우즈베키스탄 거주)과의 1월 5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현재 사역자 이전에 롤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는 없었다. 롤리 사람들 중에 이슬람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복음증거가 쉬운 듯 하나 막상 복음을 제시하면 잘 듣지 않는다.

4) 요약

우즈베크의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고 남아있는 사역자들은 감시, 전화도청 등의 문제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지인들은 가정교회 형태로 모임을 갖고 있으나, 정부가 모든 모임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다. 기독교에 대해 비방하는 방송이 계속 방영되고 있고, 교회들은 핍박당하고 있다. 우즈베크 현지인들의 복음화율은 매우 낮고, 롤리족의 기독교역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롤리족 선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일은 이들을 향한 복음의 통로를 여는 일이다. 이들은 우즈베크 땅에 살고 있지만 롤리언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 영상과 성경이 롤리언어로 번역되어 나온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더 친숙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온 우즈베크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IV.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현재 이슈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도시 재정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는 사마르칸트는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도시를 재정비하고 있다. 몇 해전에는 유적들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였고 지금은 도시 전체를 보수하고 있다. 도로를 넓히고 건물들을 새로 짓는 모습을 도시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스탄 반정부 시위

2010 년 4 월 6 일 키르기즈 북부 도시 탈라스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탈라스 주에서 시작된 시위는 비쉬켈, 나른, 이스쿨 지역 등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고 정부는 비상계엄과 통행금지를 실시하는 등 시위 진압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100 여명이 사망하고 1000 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유혈사태로 시위가 격화되었다. 이로 인해 국회가 해산되고 치안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 시민들에 의해 대형상점과 시장들이 약탈당하기도 했다. 사태의 배경을 살펴보면 2005 년에 레몬혁명으로 독재권력을 무너뜨린 바키예프 대통령 정부지만 기대와 달리 정치·경제 개혁 실패, 높은 실업률, 야당과 언론탄압, 부정부패, 정부요직에 친척등용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바 있었다. 특히 올해에 국가기반산업을 친인척들에게 민영화 시키며 전기요금을 2 배, 난방비를 5 배로 올려 시민들의 불만은 크게 고조된 상태였다. 현재 키르기즈에는 과도정부가 세워졌고 바키예프 대통령은 공식 사임한 상태이다.

V. 롤리족의 선교전략

1. 기존 선교 현황

1) 선교의 역사

현재까지 있었던 롤리족 사역자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사팀이 만나서 인터뷰한 두 분이 전부였다.

몇 년 전에 몇몇 사역자들이 성경을 롤리 언어로 번역하여 오디오 파일을 만든 바 있지만, 파일은 보급되지 못한 채 만든 이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2) 국제 및 한국 사역단체(NGO 포함)의 활동현황

2002 년에 국제비정부기구인 IACD (Institute of Culture and Development)에 소속되어 있는 안신기 선생님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롤리족을 무료 진료 해 준 사례가 있다. 2004 년에 영국단체 save the children 은 오쉬 롤리 마을에서 한달간 머무르며 롤리족의 생활상에 대해 조사하였고 저널을 출간하였다. 2009 년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한국인 15 명이 의료봉사를 왔었다.

3) 영적 상황

①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하다. 이는 교회를 통해 안 좋은 서구문화가 유입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정부는 계속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방송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선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비자 및 체류문제이다. 이는 우즈베키 정부가 장기 비자를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을 바로 추방을 하기 때문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줄었다. 또한 정부가 생일잔치와 같이 이전부터 행해지던 관습적인 모임 외에는 어떠한 모임도

금하고 있어서 현지 크리스찬들은 모임을 갖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키르기즈스탄

2009 년 1 월에 종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진 상태이다. 최근에 사복경찰이 교회에 들어와 선교사들을 추방한 사례가 있어서 많은 사역자들이 행동을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2009 년 여름에 키르기즈스탄을 방문했을때와 비교했을때 확실히 그러했다. 본 조사팀이 그때처럼 현지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으나 사역자들의 우려로 가지 않은 적이 있었다.

2. 룰리족 선교의 방해요소

1) 종족 외부적 방해요인

① 정부의 기독교 탄압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 모두 기독교 포교활동을 금지하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국가적 탄압은 우즈베키스탄이 더 심한데, 관습적인 모임 외에는 어떠한 모임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공부와 같은 모임을 가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② 편견

본 조사팀이 룰리 마을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많은 현지인들이 이를 말렸다. 룰리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고, 도둑질과 마약을 한다고도 하였다. 현지인들은 룰리마을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위험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룰리 마을에 들어가본 사람이 적었다. 하지만 현지인들이 위험하다고 한 마을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③ 룰리족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현지인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 현지인들은 룰리 사람들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며 룰리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다. 조사팀이 레기스탄(Registan)¹²⁹에서 구걸하고 있는 룰리들과 여러차례 만나 교제를

¹²⁹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유명한 이슬람 문화유적

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보고 롤리 사람들에게 외국인과 대화를 하지 말라고 몇 차례 경고를 한 일이 있었다. 롤리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이러한 문제는 종종 발생했다.

④ 사역자들의 보안 및 비자문제

사역자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비자문제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장기 비자를 잘 발급해주지 않아서 체류에 어려움을 겪는다. 보안문제도 큰 걸림돌인데 지방의 경우 더욱 심하다. 이 때문에 수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한국인 사역자가 없었다.

2) 종족 내부적 방해요인

① 이슬람적 정체성

이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의 다른 현지인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교 방해요인이다. 모두가 신실한 무슬림인 것은 아니지만 롤리 사람들과 다른 종족사람들에게 종교를 물어보면 모두 당연히 이슬람이라고 대답한다. 오랫동안 이슬람문화권에 살면서 이슬람적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다.

② 생계적 어려움

많은 롤리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하여서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눈 앞에 있다 보니, 롤리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적다. 자신들에게 빵 하나를 더 준다면 기독교도 믿을 수 있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생계문제가 극복되어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란다.

③ 같은 종족 사람들간의 의사소통 부재

외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도 있지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도 있다. 다른 마을에 사는 롤리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교류가 거의 없는 데다가 외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인식 속에 굳어졌기 때문이다. 롤리족을 복음화하려면 서로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다시 심어줘야 할 것이다.

3) 기존선교활동의 한계

(1) 선교사들간의 정보 공유

우즈벡과 키르기즈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으나 롤리족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한 선교사들이 있었다. 롤리족에 대한 정보가 선교사들 사이에서 공유된다면, 반드시 롤리족 대상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역자들이 롤리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줄 것이다. 선교사들간에 종족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 이러한 변화들이 행해지기를 기대한다.

3. 롤리족 선교의 가능성과 성공사례

1) 기존 방해요소들의 변화

키르기즈스탄은 전부터 우려되었던 종교법의 영향인지 선교사들에 대한 탄압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이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다.

2)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

① 한류열풍

한류열풍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은 모두 한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한국인이라고 하면 크게 반긴다. 조사팀이 롤리마을을 방문하는데 있어서도 이 것은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일단 호감을 가지고 대해주고 선뜻 집에 초대를 해주기도 한다. 관계를 형성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에게 이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② 교육

롤리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다. 다른 현지인들과 비슷하게 사는 롤리들도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많은 롤리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생계가 우선이다 보니 아이들 교육에 잘 신경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롤리들은 문맹률이 높고 글을 아는 사람이 적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롤리 사람들이 일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언어교육이

필요하고 기술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배움의 시기를 놓쳐 학교에 가지 못한
 물리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3. 물리족의 선교전략 제언

1) 선교전략 기본방향 제시

대부분의 물리 사람들은 형편이 좋지 못한테 이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물리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기도 하며 사역해왔다. 실제로 물질적인 필요를
 배제하고는 물리족의 선교전략을 세울 수 없을 지 모른다. 때문에
 사역자들은 사역에 앞서서 물리족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물질로 돕는 것은 반드시 재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2) 대상 별 전략 제언

① 연령별

노인

젊은이들은 일을 하지만 노인들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많은 여가시간이 주어진다. 노인들이 쉬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어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때 교제를
 통해 복음도 함께 전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될 것이다.

어린이

물리 어린이들은 대부분 구걸을 한다. 이것이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아이들은 그 시기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학교에 다닐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사역팀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거나, 마을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설치해 준다면
 아이들은 너무나 기뻐할 것이고 마음을 열고자 할 것이다.

② 성별

여성

롤리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구걸하는 롤리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구걸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간다. 롤리 사람들은 이를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오랜 기간 이런 생활을 대물림 해왔다. 이로 인해 롤리는 사회 하층민 계급을 스스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롤리 여성들이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롤리는 손재주가 뛰어나다고 잘 알려져 있기에 이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여성들에게 미용과 네일아트, 액세서리를 만드는 일 등을 가르쳐준다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여성들의 자아가 일깨워지고 복음도 함께 전해져서 이들의 삶 가운데 큰 유익이 있기를 기대한다.

남성

롤리 남성들 가운데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여성들이 구걸을 해오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일할 의지가 없는 이들에게는 일할 의지를 심어주고, 일하고 싶어도 일을 구하기 어려워하는 이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면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오쉬 롤리마을의 지도자는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말했다.

이들이 일을 구할 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기술교육인데 제빵기술, 컴퓨터, 자동차정비기술 등을 가르쳐준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많은 롤리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을 전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나온 대안 중의 하나가 ‘가나안농군학교’이다. 롤리마을의 경우 지도자에게 큰 권위가 부여되는데 지도자들에게 이런 교육을 통해 일의 필요성을 바로 심어준다면, 이들이 다른 롤리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끼칠 수 있을 것이다.

3) 분야별 전략 제언

교육

현지어를 습득한 사역자가 롤리 사람들에게 현지 언어를 교육하는 것은 좋은 선교전략이 된다. 롤리 사람들 가운데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글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롤리 사람들이 취업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키르기즈어와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등을 교육하면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러시아어는 말하는 것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말도 함께 가르쳐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

우즈베크와 키르기즈 모두 음식이 기름져서 많은 이들이 고혈압과 같은 질병에 노출되어있다. 이는 롤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의학상식이 부족해서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들을 의료기술로 돕고 관련지식도 알려준다면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즈베크 사역자 중에 수지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분이 있었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의료선교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단기선교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 모두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단기 선교팀을 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지 사역자들이 롤리에게 돈과 생필품 등을 보조해주며 돕는 것을 보았는데 단기선교팀이 헌옷, 신발, 이불 등을 가져다 주고 이들과 교제해 나간다면 이들의 마음을 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기타

롤리 커뮤니티 제공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롤리들은 상호교류가 적다. 이 때문에 롤리들은 잘 모르고 서로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롤리들 간의 결속을 장려해주고 커뮤니티 형성을 도울 필요가 있다. 먼저, 마을에 공원을 설치하여 마을 사람들간에 교제가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큰 사우나를 공급하여 롤리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들이 서로를 알아가는데 있어서 좋은 장이 될 수 있다.

거주공간을 마련해준다.

키르기즈스탄 비쉬켄에 사는 롤리들은 집이 없어서 큰 곤란을 겪기도

한다. 이곳 롤리들은 여권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권이 없다는 것은 호적등록이 안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다. 때문에 롤리들은 세를 들어 살아야 하는데 적은 수입으로 집세까지 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진다. 또한 롤리들의 이런 약점을 아는 집주인의 횡포가 심한 경우가 있어서 문제다. 이 때문에 현지 선교사는 현지인 명의로 집을 구입하여 롤리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현지인, 그리고 롤리 사람들과 잘 협조하여 적합한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구제사업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롤리 사람들이 있다. 이때는 이들을 물질로써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인 집들을 보면 수도, 가스관시설이 대부분 잘 되어 있는데 반해 롤리 사람들이 사는 집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를 더 알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롤리들을 위한 구제사업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롤리를 도울 때 현지인 돕는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롤리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많은 현지사람들이 자신들의 형편도 그들만큼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구를 활용한 복음제시

롤리 사람들은 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대부분의 가정에 DVD 플레이어기가 있었다. 때문에 복음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롤리어로 더빙하여 공급한다면 롤리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롤리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경과 신앙서적과 같은 서적을 활용하기보다는 들리는 성경과 같이 청각적인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롤리족 선교에 효과적일 것이다.

5) 현지교회 개척 전략

(1) 전도의 방향성

롤리 마을을 들어갈 때 마을의 지도자를 먼저 만나고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된다. 롤리족에게 접근할 때에 마을 지도자와 먼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롤리족은 기독교에 대해 큰 거부감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다른 신을

믿는 종교라고만 생각한다. 실제로 툴리족은 강한 무슬림은 아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계속적으로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툴리족을 사역하며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툴리족에게 거짓말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구걸을 하며 살아오면서 거짓말이 생활 깊숙히 들어와 버렸다. 이들에게 거짓말에 대한 죄의 인식을 바로 심어주어야 한다.

(2) 교회의 형태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키르기즈스탄도 교회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고 있어서 점차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양국 모두 선교사들에 대한 억압이 심해졌고 현지사역자에 대한 필요는 더 커졌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했다. 개개인의 신앙을 함께 세워나갈 공동체가 필요하고, 소그룹 리더들이 필요하다.

(3) 현지 지도자 양성

툴리족에게 있어서 지도자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지도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현지에서 만난 툴리 이맘은 일대일로 제자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처럼 일대일로 제자양육을 하며 현지사역자를 키우는 시도가 필요하다.

V. 나가는 말

중앙아시아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룰리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왜 그곳에 와서 살기 시작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룰리족에 대해 나와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가운데, 본 보고서가 룰리족을 알리는 하나의 자료가 될 것이다.

룰리족은 자신이 살고 있는 각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 받기를 원하고 있고 동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들만의 문화와 언어가 아직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 다른 현지인들과 동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이 현지인들과 비슷해지고자 했던 영역 가운데 종교가 있다. 이들은 현지인들이 믿는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있다. 샤머니즘과 무속신앙적인 삶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예수님을 알고 그 빛과 진리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자들 가운데 룰리족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은 비록 연약해 보이는 민족일지라도, 그들이 복음화되고 진정으로 변화된다면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룰리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때에, 다른 이들도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룰리족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에는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약한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 룰리족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는다고 믿는다. 룰리족 복음화는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우리는 룰리족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룰리족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룰리족은 선교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종족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룰리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와 사역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소망한다.

<참고문헌>

사마르칸트, 사마르칸트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주 우즈베키스탄

KOICA 사무소

Save the children, 2004 오쉬에서의 룰리족의 삶의 환경과 공동체 생활」,
사마르칸트 [사마르칸트 통계청 문헌자료 1996-2007]

IBM, WebSphere Portal www.centralasia.ru

YTN www.ytn.co.kr

크리스천투데이 www.christiantoday.co.kr

국민일보, 쿠키뉴스 www.kukinews.com

한국오픈도어선교회, www.opendoors.or.kr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www.uzb.mofat.go.kr

Neweurasia, www.neweurasia.net

여호수아 프로젝트 www.joshuaproject.net

키르기즈 한인경제인협회 www.kyrco.com